우리 가정을 빼놓고, 우리 삶을 빼놓고 부처님 법은 없다

☞ 19면에서 계속

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게 가로 걸리겠습니까?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름 놓을 판인데, 여러분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.

옛날에 아, 스님들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죽었는데 말입니다, 까치 둥우리로 영혼이 가더랍니다. 그래서 저놈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그냥 주장자로다가 쳐서 내리고선 자꾸 그 주장자로다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. 또 한 사람은 스님하고 아주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. 법사님이 떡 열반을 하셨죠. 연세가 많을 때까지 노고를 마다 안 하고 하셨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제비 둥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 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. 그래 다시 살아났죠?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. 왜 제비 둥우리로 들어갔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. 하하하. 뭐, 삼층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. 그러니 환상에, 환상에 녹죠.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.

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, 내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해 드리면서,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있어야, 이게 이익이 있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.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,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중에 모두 총 계합을 해서 보니까 네 부모 내 부모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더라고요.

그러니 첫째,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쁘게 하더라도,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러도 항상 그럽니다. "네가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네가 없었더라면 누가 부딪치겠느냐?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.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.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. 항상 잘못하라는 법만은 없다.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봐라. 그러면 대번, 대번 돌아간다. 바로 여기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. 같이 불이 들어온다." 이렇게 말입니다.

그리고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. 그래야만이 외착이 없으니까. 감히 병고도,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,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입니다. 이 모두가 다 남을 해(害)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고, 십만 팔천 리입니다, 하하하.

그래서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실천궁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.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,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, 죽어서 승천하라고,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겁니까?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영혼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.

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모두가 지 수 화 풍, 네 가지 요소로 돼 있는 겁니다. 일체 만물이 다 요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(물컵을 들어 보이시며)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거죠. (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) 이것도 그렇고요. 지수화풍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, (법상을 가리키시며) 이것도 그렇고요. 흙과 물과 또 바람에 말리죠? 불에 굽죠? 그러니 우주의 개공이 (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)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인간도 지 수 화 풍, 바로 네 가지가 대두돼 있는 걸요.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도…. 그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전력을 끌어올 수 없듯이 우린 항상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 소립니다. 거짓말 아닙니다.

'아이고, 기가 떨어졌어. 난 못 살겠어.', '난 못 살겠어. 나는 죽겠어.' 그 생각밖에는 안 나겠죠? 들어야 나죠, 들어야. 먹어 보고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. 안 그렇겠습니까?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? 또 생각한다면,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꾸 자꾸 그저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'나 죽겠다.' 아, 기운이 조금 없으면 기운을 발휘해서 좀 넣고 기운이 너무 많으면 좀 빼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 아니, 그놈의 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? 다리가 아프면 '야, 네 시자인데 네가 건강하게 해 가지고 끌고 다니지 누구 몸뚱이기에 그러냐.' 그러고선 거기다 뚝딱 맡겨 버리는 거야.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요. 그 마음의 주인 그놈의 시자죠. 그리고 돈, 보석이 있다면 관리인이고요.

그러니 관리인으로서 충만히 100%를 다 할 생각은 안 하고 내 거라고 붙들고는 그냥 100%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게 고장이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죠. 그렇게 100%를 관리인으로서 한다면 아마 오붓하게 모일 겁니다. 그러나 내 거라고 움켜쥐고선 모으려고 그러면 허, 요리로 빠져나가고 저리로 빠져나가고 요리로 나가고 저리로 나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.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?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.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? 돈도 그거를 알아요. 돈이 너무나 잘 알죠. 그 마음을 읽어 버리니까요. 들어가려다가도 '에이, 난 저 집은 안 들어가.' 그러면 돈 받을 것도 못 받아요. 안 받아져요. 그래서 어떤 집은 "거기다가 놓고 '주인의 돈이니까 주인밖엔 받을 수 없다.' 그래라." 어떤 땐 그러죠. 하도 딱하니까.

이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또 들려 드릴까요? 이 안에서 고장 난 거는 안에서 광력을 쓰고, 우리가 눈과 귀와 냄새와 결정과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하듯이 왜, 바깥에서 왁작왁작하고 싸우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적인 것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지 않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

그렇듯이 이 통신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?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.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은 천리만리라도 아주 한 찰나에 왔다가 한 찰나에 갑니다. 우리 제자들이 그냥 이래 보여도, 그냥 허술해 보여도 그래도 그거를 쥐고 그 통신력에 귀를 기울이고는 어떡하든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, 스님의 그 요지에 한 치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, 어떡하면 천 리, 즉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스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…. 그건 통합니다.

그래서 가끔, 뭡니까? 천도재를 지낼 땐 반드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. "남의 천도를 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되니까, 스님, 아셨죠?" 이 소리가 그냥 마음에 와서 딱 닿죠. 그러면 속으로 또 '알았다.' 이러죠. 이 문제가, 통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의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이렇게 나투실 때, "아휴, 나는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." 할 때에 그냥 정성이 지극하게 이 내면에다 해야 그것도 알아들으시지 바깥으로 믿거나 이래 가지고는 부처님이 알아듣질 못해요. 그래서 달마 대사도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.

그래서 마음에다가 참 지극하게, 지극한 마음의 불을 켠다면 응신이 되셔서 응해 주시죠. 그게 통신력이에요. 이 통신력이 충만하다면 자력도 또 충만합니다. 모두 여러분이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못 쓰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.

그래서 저 서울에서 어느 신도 하나가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자기 친구만 그냥 뭐, 허리가 어떻게 됐다나요? 속의 뼈가 부러져서 모두 으스러졌답니다. 그런데 영 깨어나질 않으니까 삼 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. 깨어나게 끔이라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. 그래서 "내가 의사야?" 하하하, 그래 놓고선 "알았어." 그랬는데 얼마 안 있더니 "아, 깨어났습니다."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. "그래, 어떡하는지 알지?" "예." 그래요. 남자인데 말입니다. 그래서 자기가 깨어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'주인공,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.'라고 하라고,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마음을 내서…,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뭘로 한다던가? 그 뭐, 암세포 죽이는 거 뭐라고 그러지? 방사선 치료?

그런데 안에서 자기네들이 방사선으로 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? 네? 안에도 모든 게, 어떤 분야든지 자기 아님이 없는데,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 자기 아님이 하나라도 있겠어요?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게 또 진이 나오지 않는 걸 나오게 해서 붙이는 데도 자력이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해 줬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그 뼈 부러졌던 게 다 붙었더라는 겁니다.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.

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요.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, 그냥. 뭐,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.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? 서울에서는 의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,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한 회원이 되고 또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한 회원이고, 또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대로 또 한 팀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한 팀이고 모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 모든 거를 실험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단수가 높아질 수가 없더란 얘깁니다.

다음 호에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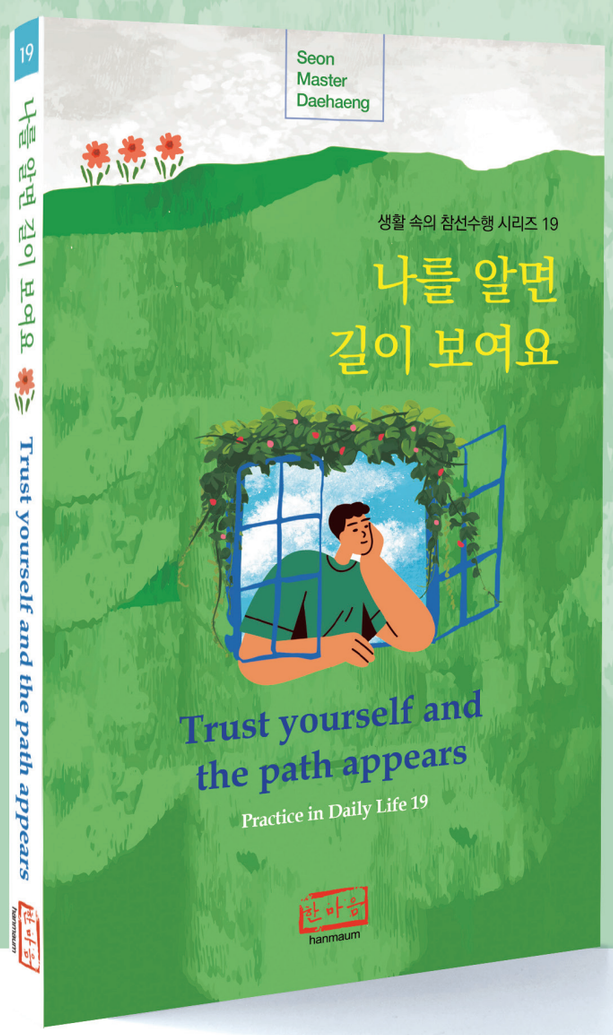
>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
>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
>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.
>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.

※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《허공을 걷는 길》 중 1992년 6월 21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.

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(한영합본)

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

대행큰스님 법문



자기 삶을
당당하고 패기있게
이끌고 싶다면

답은 언제나 한 곳에
'내 마음 속'

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

절찬리 판매중!

값 9,000원